

PRESSBOOK

Wim DELVOYE

Harper's Bazaar Art Korea

October 2014



Harper's Bazaar Art Korea
 October 2014
 Lee Jieun



2012년 5월에서 9월까지 루브르에서 열린 (At the Louvre) 전시에서 11미터에 달하는 Suppo (2011) 앞에 선 Wim Delvoye

소년, 악동, 예술가 그 모두인 남자

오는 10월 말까지 파리의 페로탱 갤러리에서 빔 델보예의 새로운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문신한 돼지 같은 악동스러운 작품에서 숭고미를 선사하는 고딕미술 모티프의 작품까지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펼쳐내는 빔 델보예. 오프닝 날 이문제적 작가를 만났다.

는 과정을 함께하게 된다. "나에게 있어서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사라지는 것들, 이 양자의 콘트라스트가 흥미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로 인해 벌어지는 일대 소동, 고소와 고발, 언론 매체의 호들갑 역시 흥미로운가? 빔 델보예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호의적이다. 단지 공권력으로 인해 자유롭게 작품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는 일을 경계할 뿐.

문신한 돼지 작품이나 소화기계 장치 모두 일종의 블랙 코디미처럼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한 냉소를 뽐아낸다. 그런 점에 있어서 평론가들은 그를 '현대의 다다이스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빔 델보예는 이 말을 듣자 소년처럼 부끄러워하며 "기분 좋은 소리"라고 응수했다. 그는 1983년 벨기에의 도시 강(Gand)에 위치한 보자르 예술 아카데미에 입학했지만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대체 무엇을 배우는 건지, 아무 소용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학교를 그만두려고 할 때 그를 학교에 잡아둔 것은 다다이즘 강의였다. "난제에 부딪힐 때면 '마르셀 뒤샹'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하고 상상해보곤 하죠."

세간의 이목을 주목시킨 두 작품 외에도 빔 델보예

의 세계는 넓다. 단순히 그를 화제를 몰고 다

니는, 스타가 되길 원하는 아티스트로 폄

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

어무리 기상천외한 현대미술 작품에 익숙

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딕 성당 수

천 개가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날아

오르는 듯한 그의 2011년 작, 루브

르 피라미드 한가운데 전시된 '슈포'

(Suppo) 앞에 서면 숭고미에 전율

하게 마련이다. 그는 이 외에도 고딕

미술에서 따온 모티프들로 가득 채워진

'타워(Tower)' 시리즈와 고딕 모티프를 조합

트럭의 형태를 만든 '트위스트 덤프 트럭(Twisted Dump

Truck)' 등 과거의 미술사를 재해석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유

명하다. 왜 하필 고딕인 걸까? "어릴 때부터 고딕 성당에 둘러싸여 살

았어요." 프랑스와 벨기에의 국경 도시인 베르비(Wervik) 출신인 그에게 고딕

양식의 건축물은 친숙한 대상이었다. "고딕 미술품이나 건축을 보면서 '로맨

틱(Romantique)'한 감정을 느꼈죠." 유럽 미술사에서 로맨틱이란 우리가 생

각하는 사랑의 감정과는 다르다. 그것은 장엄하고 슬프며, 동시에 비장한 깊

은 격정의 상태를 말한다. 십자군 원정에 나서 터키 군과 싸우며 자신의 종교

적인 이상과 열정을 지키려 했던 중세인들까지는 아니지만 고딕 성당 앞에 서

면 누구나 비장한 감정을 느끼게 마련이다. 고딕 예술품의 형태에 대한 공부

를 시작으로 빔 델보예는 고딕 건축물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기둥의 형태, 천장

의 지지구조, 돔의 모양 같은 건축물을 이루는 법칙에 매료되었다. 건축가들

빔 델보예(Wim Delvoye)는 끊임없이 화
 재에 오른 아티스트다. 인간의 소화
 과정을 기계로 재현해 음식물을 투입
 하면 3일 뒤 똥이 되어 나오는 기계인 '클로아
 카(Cloaca)'로 사람들을 기겁시키더니 돼지
 에 문신을 한 뒤 박제한 작품으로 각종 신문
 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자신
 의 '예술농장(Art Farm)'에서 돼지를 키우며 돼
 지 등에 다양한 도안의 문신을 새긴다. 문신의 주
 재를 따 '성모마리아' '인어'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돼지
 들은 일 년 정도 사육되며, 죽은 후에는 박제가 되어 영인
 한 예술 작품으로 남는다.

"다른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리듯 나는 문신을 하죠." 동물보호단
 체에서 맹렬한 비난을 받은 돼지 박제 작품에 대한 그의 설명은 간결하기 그지
 없다. 그에게 있어 문신은 살아 있는 존재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재미있는 사
 실은 그의 야심이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는 예술농장을 확장해
 주식을 팔고, 주식을 산 사람들이 언제라도 농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웹캠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었
 던 바예요." 돼지는 살아 있는 동물이다. 돼지가 살아 있을 때 돼지 위에 새겨
 진 문신은 살아 있다. 살아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을 가진 예술이라고 할
 까? 돼지가 죽으면 돼지는 죽지만 문신은 남는다. 현실 속에 늘 그 모습 그대
 로 남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술이 변화하고 탄생하



Dunlop Geomax
 100/90-19 57M 360° 3x,
 2013

ATEJ/Kang Moonsook, © Studio Wim Delvoye, Bakulam, Collabum, Zaccarelli, Courtesy: Galerie Perrotin



Harper's Bazaar Art Korea
October 2014
Lee Jieun

을 보내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과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실측 사이즈를 확인 했을 만큼 철저한 고디 연구자이기도 한 빔 델보에는 고디 건축 고서적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다.

고디의 정서를 우리가 쉽게 접하는 현대의 물건에 접목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온 그의 최신작 가운데에는 타이어로 만든 작품도 있다. 타이어가 피비우스의 띠처럼 꼬이고 연결된 '제오막스(Dunlop Geomax)' 시리즈와 '생 티트르(Sans Titre)'가 그것이다. 제오막스 시리즈와 생 티트르 시리즈는 같은 타이어를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작품이다. 생 티트르 시리즈는 고무 타이어에 레이저로 조각을 한 작품이지만, 제오막스 시리즈는 타이어 모양을 하고 있는 금속체, 알루미늄을 틀에 찍은 뒤 색칠해 타이어와 똑같은 모양과 느낌을 주지만 사실상 타이어가 아니다. 타이어, 트럭, 트레일러 등 그의 작품 세계는 일련의 평범한 오브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왜 하필 타이어나는 질문에 그는 재미있지 않냐는 듯이 양팔을 벌리며 "누구나 타이어를 알고 있잖아요. 이런 민주성,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오브제들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라고 말했다.

루브르에 전시된 '쉬포'는 구상과 제작에만 4년이 걸렸고, 그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데생과 밑그림을 남겼다. 블랙 코미디로만 보이는 똥 기계 '클로아카'는 무려 8년의 연구를 거쳐 탄생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진지하기 그지없는 빔 델보에는 그림에도 언제나 재미나고 즉흥적인 소년 같은 사람이기를 원한다. 알루미늄 브리프케이스에 페르시아어 인들의 문양과 자신의 캐리커처를 새겨 넣은 신작 시리즈 '리모아 클래식 플라이트 멀티휠(Rimowa Classic Flight Multiwheel 971, 70, 00, 4)'은 혼자 앉아 끄적거린 낙서에서 출발했다. 재미로 만든 작품이라며 눈을 찡긍거리며 그의 소년스러움은 웹사이트 빔시티(www.wimdelvoye.b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건물로 이뤄진 가상의 애니메이션 도시가 첫 페이지로 도시의 각 건물들은 그와 관련된 빔 델보에의 작품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테면 노란 불이 들어오는 성당을 클릭하면 고

딤미술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모은 페이지로 링크되고 'Cloaca'라는 간판이 걸린 공장은 '클로아카' 작품의 스케치 등으로 링크가 연결된다. 성격이 다른 그의 다양한 작품을 모아놓은 그야말로 '빔 델보에 월드'라고 할까. 그에게 있어 빔시티는 그의 관심이 모두 집중된 가상의 도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유토피아이다. 마치 월트디즈니의 세계처럼 말이다. (그는 월트디즈니의 팬이기도 한데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도널드 덕 등의 디즈니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련의 매생 시리즈를 제작하기도 했으며 2000년 제작된 그의 로고는 자신의 이름을 디즈니 픽처스 로고에 삽입한 것이다.) 급기야 빔 델보에는 디즈니 월드처럼 가상의 세계를 넘어 지상에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이란에 갤러리, 레스토랑, 놀이시설, 카페 등으로 가득한 신나는 공간을 만들 생각인 거다.

현실에 눈을 떴지 않으며 동시에 자신의 상상을 구현해내는 아티스트. 그가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슈는 다양성의 실종이다.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똑같은 사실을 반복하여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떤 사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영

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 거대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언론이 휘둘리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별 생각이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 그는 심심한 우려를 표했다. 늘 남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문제적 아티스트에게 다양성의 실종이란 정말로 무서운 일일 것이다. 그는 진정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작품을 바라봐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후에는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이것이 빔 델보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다. **B**

한지 인터뷰/이지은(칼럼니스트) 에디터/인홍선

자신의 캐리커처를 새겨 넣은 알루미늄 브리프케이스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빔 델보에



"나에게 있어서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사라지는 것들이 양자의 컨트라스트가 흥미로운 겁니다."



리모아 클래식 플라이트 멀티휠 작품들이 전시된 모습

'Sans Titre(Truck Tyre)/Untitled(Truck Tyre)', 2013



'Sylvie', 2006